2005 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2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2004 년 11 월 21 일

2005 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2 의 언어논술 시험은 대학생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해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주체적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 사고와 영어 능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논제와 문제 형식이 만들어졌다.

이번 논술의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들 사이의 관계'이다. 현대는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며, 갈등을 벌이는 시대이다. 한편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적 획일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번 논술 시험은 젊은 지성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사유를 전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직접 묻기보다는 여러 제시문들의 관계 속에서 주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였다.

시험의 전체적인 틀은 수시 1 의 형태를 유지하여,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 I 과 제시문을 연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어 관계를 밝히고 (자연계의 경우, 제시문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 요구사항을 생략),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하는 문제 II 로 구성하였다. 다만 제시문의 개수를 셋으로 줄이고 제시문의 길이를 늘인 것이 이번 시험과 지난 시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긴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과 심층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제시된 세 개의 글들은 각각 고유문화에 대한 말살 정책의 실패와 외부 문화의 창조적 수용, 다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적 동화(同化)의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들은 서로와의 관련 속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들 사이의 관계'라는 주제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공통의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각 제시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 개의 글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제시문 (가)는 브라질 정부가 원주민들을 소위 '문명생활'에 통합시키기 위해 펼쳤던 정책의 실패와 이후 원주민 사회에서 진행된 독특한 문화의 창조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글은 한편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말살하려던 정부 정책의 실패와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들이 전통을 유지한 가운데 타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재창조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제시문 (나)와 궤를 같이 하면서, 문화적 동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 (다)와는 구별되는 문화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19 세기 중엽 감자의 단종재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던 대기근에 대한 사례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례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교적 명확한 주장을 담은 이 글은 제시문 (가)

와 (다)를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끝으로 제시문 (다)는 문화적 동화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문화적 다원주의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밝히는 글이다. 필자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소수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화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속성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제시문 (나)에 대한 섬세한 비판일 수 있으며, (가) 글에 나타난 것과는 차별되는 유형의 문화간 관계인 동화에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요약, 연관 관계의 규명(자연계의 경우, 생략), 그리고 공통주제에 대한 논술은 수험생들이 깊고, 다양한 사고를 전개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제시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참조하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표현을 통해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관건은 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논거를 통해 밝힘으로써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는 것이다.